

만남

05

2022
통권 579호



영락 지금



부활주일, 안식 후에 안식이 오다

오랜만에 교회 뜰이 북적였다. 지난 4월 17일 부활주일을 맞아 그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당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누가복음 23:54~24:3절을 본문으로 ‘안식 후에 안식이 오다’란 제목의 부활주일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활절을 맞아 베다니광장에는 3년 만에 부활한 문화선교부 공연팀이 선보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공연들을 관람하며 기뻐하였다. 문화선교 공연팀 지크로스(G.Cross)의 퓨전 타악 공연과 스티그마팀의 공연으로 성도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사진은 스티그마 워십팀의 ‘Joyful Joyful’ 울동.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김운성

- 가정의 달 특집** 04 믿음과 구원의 자녀로 사는 삶 설근동
06 ‘믿음의 가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 김수아
08 만남에서 결혼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승미
10 성경 속의 인물 요셉과 우리 어머니 윤순자

특별기고 12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 본 차별금지법 이재훈

기획연재 18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김창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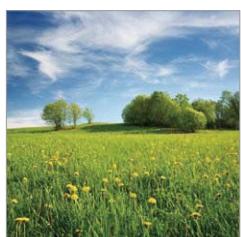
- 다음세대** 24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꿕니다! 백성우
26 함께 서는 신앙 공동체 문호선

- 영락의 울타리** 29 기독교의 그릇 윤연상
32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담하는 경청의 비결 강승훈
35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은 이 땅의 가나안입니다 최영순
38 척추의 골절 안동기

- 문화광장** 41 갈릴리찬양대 40년 임우섭·송진국
45 배제와 포용 이후림
47 빛과의 대화 김경인

- 교회소식** 47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외
52 5월 목회력 /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푸른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운치가 있다.
노란 꽃의 별판이 마음을 열리게 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김운성 위임목사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13)

落葉이 우수수 쌔러질때
겨울의 기나긴밤,
어머님하고 둘이안자
옛니야기 드리라,

나는어째면 생겨나와
이니야기듯는가?
뭇지도마라라, 來日날에
내가父母되어 알아보라?

이 시는 김소월이 1929년에 지은 〈父母〉라는 시입니다. 나중에 곡을 붙여 유행했지요. 어머니와 둘이 앉아 정겨운 이야기로 기나긴 겨울밤을 지새우는 서정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은 이런 마음 깊은 대화를 얼마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보금자리요 따스한 안식처입니다. 점차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모두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외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은 구원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전날 밤, 애굽 백성의 집에서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애굽 백성의 가정은 죽음의 세계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구원의 세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안전지대였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 출입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출입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피가 죽음의 가정과 생명의 가정을 구분하는 표식이었습니다. 피를 바른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들이 죽은 대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피는 예수님 보혈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집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유월절 양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

가정을 구원의 안전지대로 만드는 비결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는 집 안의 어떤 곳이 아니라, 바깥 문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야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대문에 부착한 <영락교회> 교패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여덟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복잡한 세상에서 긴장했던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가정. **둘째**, 신경질 많고 거칠게 살던 가족들이 위로받고 응석을 부릴 수 있는 시기 질투가 없는 가정. **셋째**, 실패하고 용기를 상실한 가족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가정.

넷째,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가정. **다섯째**, 찡그린 얼굴 없이 사랑과 미소가 가득한 가정. **여섯째**, 즐거운 대화와 정겨운 노래로 기쁨을 나누는 가정.

일곱째,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논하는 가정. **여덟째**, 주일에 온 가족이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드는 비결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삽개오는 예수님을 모셔 들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과 가정이 변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의리도 인정도 없이 살던 삽개오가 사랑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을 줄만 알던 수전노가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적이 끊어졌던 그 집에 손님이 북적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과 높은 신분을 가진 억만장자라 해도 오갈 곳 없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족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예수님 안에서 가꾸길 원합니다. **안녕**

믿음과 구원의 자녀로 사는 삶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은 순간, 뒤에 선 경비에게 눈치를 받은 주인공은 개인 사물을 작은 박스에 담아서 길거리로 나서는 영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남들 다 일하는 대낮에 길거리로 나선 실직자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온다. IMF 시기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1/3의 직원이 정리해고로 퇴직했다. 매일 출근하는 차림으로 집을 나선 후 퇴근 시간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오는 실직 가장의 에피소드를 뉴스에서 접하던 시절이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월급날이 다가오면 형편이 나은 주변 분들에게 돈을 빌리곤 하다가 결국에는 가족들이 알게 되는 슬픈 이야기다. 다니던 직장을 자의나 타의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다. IMF 시기는 아니었지만, 필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 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설근동
집사
종로·성북교구
중등부 교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교사가 아닌 회사원으로 긴 세월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뒤틱게 교생실습을 나가며, 박사과정을 시작하려던 차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모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대학원 연구실과 병원에 오가며 생활했다.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 드리는 일부터 밤중에도 여러 번 부축해서 화장실 다녀오는 일, 시간마다 들어와서 확인하는 의료진으로 밤잠을 설치던 일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감당하기 힘겨웠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8년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셨다.

작년에 중등부 봉사를 한 지 만 10년 되었다. 우리 집 막둥이가 10살이니 중등부 봉사 시간과 같다. 크리스마스 전날 중등부 찬양대와 교사, 전도사님들이 몇 가정을 도는 철야 행사가 있었는데, 막둥이가 태어난 지 3주쯤 됐을 때 우리 가정도 신청했었다. 마침 내린 눈으로 길이 얼어붙어 12시가 넘어서야 힘들게 찾아오셨다. 아내는 막둥이를 안고 찾아오신 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없는 솜씨지만 직접 만든 만둣국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지금도 막둥이는 초등부 예배를 마친 후 중등부 언니 오빠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들어와 앉아 있곤 한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믿음 생활이다. 중등부 학생들이 고등부로 올라가면서 적지 않은 자녀가 교회를 떠나간다. 대학에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자녀들만이 신앙생활을 이어 가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교회 밖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신



앙을 이어가도록 기도와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 교회의 교육부서에 자녀를 맡겨 놓고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다. 믿음의 자녀는 교회학교와 교사, 그리고 부모님이 삼위일체로 정성을 쏟아 함께 양육해야 한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일은 부모의 가장 큰 투자이며 사랑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힘든 세상도 처음인 것 같다. 일관되게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누군가는 날이 밝는 것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움의 날을 맞는다. 감당하기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매일 마주하는 분이 어떠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른 채 지나치기도 한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주변을 살피자. 각자의 형편에 맞는 물질로, 따뜻한 위로 한마디로 어두운 장막을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17)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1)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12)

살아온 날보다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깝다. 사람은 누구나 천국이든 지옥이든 판정받는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기에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남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믿음의 결과에서 표현되는 행위는 당연히 구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8)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13)

주 예수를 믿어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면 마땅히 일상생활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 곧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돌아와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단련하소서! **만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나이에 부모님의 결정으로 호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 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저희 남매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꿈꿀 수 있도록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간다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호주에서의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할 거란 기대도 잠시, 비자 문제로 아버지는 다시 한국에 다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호주에 남게 된 엄마와 동생 그리고 저는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예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당시 만 5살, 만 8살이었던 저희 남매는 어머니의 꾸준한 인도로 매일 빠짐 없이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호주에 있었던 약 4년 동안 가정예배는 지속되었고, 예배의 자리는 자연스레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호주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익숙해 질 때 즈음, 또 한 번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던 동생이 갑작스럽게 희귀병을 앓게 되면서 순탄해지던 호주에서의 생활도 멈추게 돼 버린 것입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병원



김수아
성동·광진교구
고등부 교사

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로 인해 저는 당시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의 집에 머물며 생활을 해야했습니다. 동생은 원인 모르는 병으로 치료법도 없었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강도 높은 약으로 마냥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속절없이 흐르는 병원에서의 시간, 가족 모두가 다 다른 거처에서 헤어져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결국 우리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호주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보낸 마지막 밤에 드린 가정예배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밤으로 기억됩니다. 그 이유는 마무리 기도를 앞두고 동생이 한 한마디 때문입니다. “호주를 떠나는 건 너무 아쉽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분명 엄마 아빠의 결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최고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어요. 그러니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당시 초등학생의 어린 나이로 통증과 긴 병원 생활로 우리 중 가장 힘들었을 동생의 ‘믿음’은 부모님에게 깊은 감동과 위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호주로 떠난 건 단순히 몇 년 유학 생활을 할 목적이 아닌, 이민을 염두하고 한국을 떠났기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모님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의 그 말 한마디가 돌아갈 것을 망설이고, 걱정 하던 저희 가족에게 확신과 믿음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4년이라는 공백을 채우고 적응하느라 한동안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



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허락하셨고, 무엇보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가족’의 소중함을 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족’의 존재는 저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가장 큰 동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난 생처음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험을 했고 그로 인해 제 신앙은 차츰 무너져감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가장 가까이서 제 상황을 알고 바라만 보고 계실 부모님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니는 군입대한 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군 복무를 위한 가정예배를 드릴 것을 제안 하셨습니다. 처음 목적은 떨어져 군 생활을 하는 동생을 위한 예배의 자리였지만, 결국 가족의 신앙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말씀대로 365>를 토대로 매일 밤 10시 정각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의 신앙과 기도 제목

직장생활을 하며 매일 밤 10시에 가정예배 드리는 것, 쉽지는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드는 날도 있었고, 괜히 하루 정도는 쉬고 싶은 날들도 있었지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하시는 주님이시듯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해 그 자리로 인도해주셨습니다. 동생을 위한 기도로 시작된 예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을 위한 기도도 하게 하셨고,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마음을 내려놓으므로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가족 앞에서 기도한 솔직한 마음은 예배 후 나눔의 자리가 되어 점차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셨고, 이를 통해 또 한 번 믿음의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욱 감사한 것은 할머니의 믿음으로 3대가 영락교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곳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주일예배 외 특별 예배가 있을 때면 항상 가족과 함께 본당에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교회 내 교육부서에서 봉사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현재는 동생과 함께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가정’을 선물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서로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더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이 기쁘나 슬프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최고를 주실 것을 믿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만남에서 결혼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2020년 5월 16일 선교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과는 영락교회 청년부 조장과 조원으로 만났습니다. 처음 신입 조원으로 남편이 오던 날,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주님께서 인연을 보내주시려나 생각도 잠시. 신입이라며 들어오는 남편은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큰 키에 마른 몸. 아침부터 묘한 느낌에 혹시나 했던 감정은 남편을 본 순간 혹 사라졌습니다. 제 이상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그랬었나 봅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로 사실 제가 너무 날카로워 보여서 자기 취향이 아닌 덕분에 주님께서 ‘이 사람이



이승미 집사
청년부 꿈꾸는땅

다!’하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상형이 아닌 두 사람이 하나 되었는데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분명 서로가 너무도 다른데 이보다 나에게 더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가끔은 여자를 아직도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만드신다면 나는 저 남자의 갈비뼈였으리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타이밍

살아온 가정환경도, 신앙의 모습도, 성격도 모든 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기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장과 조원으로 지내던 두 사람이 처음 만나고 2년 뒤에 <선교비전 바자회>에서 다시 만나기까지 주님께서 간간이 기도를 통해 연락이 끊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가끔 연락하도록 마음 주시고, 순종해 안부 연락을 하며 지낸 덕분에 그해 <선교비전대회>에서 만날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조원에게 안부 연락하는 것이 순종이었지만, 훗날 남편은 최고의 밀당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끔 하는 그 연락이 어찌나 타이밍이 절묘했던지요! 잊을 만하면, 또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생겨 연락해볼까 하면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제 연락이 왔다니 주님의 타이밍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예배에서 응답 받은 배우자

선교비전대회 이후 두 번째 만남은 금요일 저녁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데 어찌나 즐거운지. 헤어지기 아쉽지만 그 날따라 평소에 안 가던 금요기도회에 꼭 가야 할 것만 같아 아쉬움을 뒤로하고 금요기도회에 가야 해서 이만 헤어지자고 인사하며 슬쩍 함께 가지 않겠느냐 권유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헤어지기 아쉬워서인지 덥석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금요기도회에 갔습니다. 그 날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형제 옆에서 오랫동안 예배드릴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에 ‘아 이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확인하는 기도를 드리고 확

신을 얻어, 하기 선교 봉사를 다녀와 남편에게 고백받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까지도 모든 과정이 순조로이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부 최재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모든 조각이 모여 <1000 피스>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딱 맞는 때가 있다”. 주님의 일하심이 그려하다 하셨는데 만남과 교제, 결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단편적이었던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퍼즐 조각 맞추듯 딱딱 들어맞아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보니 모든 만남의 중요한 순간을 교회와 예배, 사역이 함께 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지금도 가끔 싸우고 나면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었지만, 자는 모습만 보면 예뻐서 마음이 스르르 풀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맙니다. 분을 품어도 다음날까지 품지 말라 하셨지만, 인생의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신혼 초에 남편 벼룩을 잡아놔야 한다고 하시던데 먼저 알아서 풀려버리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나 이상과는 다르지만, 주님 믿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게 너무도 과분한 믿음의 부모님 허락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믿음의 배우자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만남**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의 인물 요셉과 우리 어머니

내가 좋아한 요셉의 이야기

나에게 성경 속의 인물 중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거침없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돋는 자”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로, 외모도 준수하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다행히 요셉은 이집트 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띠어 그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함께 옥살이하던 이집트 왕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해줍니다. 어느 날 파라오가 꿈

을 꿉니다. 살찐 소 일곱 마리가 있는데 비쩍 마른 소 일곱 마리가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옥살이했던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알려줍니다. 파라오의 부름을 받은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간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해 대기근에 대비하도록 명합니다.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혔던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으로 없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대기근으로 식량이 떨어진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넘어오고 총리 신분의 요셉을 만납니다. 지난날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죄를 사과하는 형들을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준 형제들을 하나님의 뜻과 용서로 실천한 창세기의 요셉 일생은 여러 면에서 예수의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일깨워 주심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랑과 칭찬으로 양육한 어머니

성경 속 인물이 아닌, 현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신, 지금은 타계하신 부모님입니다. 7남매를 낳아 키우신 어머니는 현실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교회에 다니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걸 허락하셨고, 한밤중에 어쩌다가 길을 잊고 헤맬 때 멀리 우뚝 솟은 집자



윤순자 은퇴권사
서대문·은평교구

가를 보고 집을 찾아오셨다고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DNA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일곱 자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유달리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어도 칭찬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보다는 적지만, 일곱 남매도 결코 적은 수는 아닌데, 지극한 정성으로 한 명 한 명 보듬어 주셨습니다. 일곱 남매의 맏이인 저는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35년간 여고에서 가정과 교사로 봉직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참으로 지혜롭고 쉽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교사생활하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강인한 정신력과 사랑 덕분에 잘 이겨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수록 효도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자녀를 대학에 보내면서도 등록금 걱정도 없게 하시고, 아르바이트할 필요도 없도록 지원하셨는데, 그 훈한 여행 한번 못 보내 드리고 사랑을 받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와 손잡고 교회 한 번 못간 것도 너무도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해야 했던 말씀을 여쭤본 것이 지금도 뿐듯합니다. 어머니의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 어머니 영혼을 맡겨드리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엄마! 목사님 모시고 찬송가 부르고 예배 봐도 괜찮겠어?” 물어보



어머니와 함께 고3때 사진

았습니다. 어머니는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형제들과 친지 몇 분을 모시고 목사님의 인도로 입관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뿐듯합니다. 지금도 기일이면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곤 합니다.

일상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린도전서 13:3) 말씀처럼,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 일곱 남매가 기독교 신앙으로 살도록 하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생명이 있는 한 어머니의 정신력과 사랑을 평생 배우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도록 명심하며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부모님께 못다 한 효도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용서를 빌며 이웃 사랑과 칭찬으로 기쁨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영생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안남**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 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과 관련, 이미 이러한 종류의 법이 통과된 유럽과 북미 또 일부 나라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본다면 결코 행복한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라가 됨으로써, 종말을 향하여 나아갈 때 구원받는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것 뿐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문학비평가인 C.S.루이스가 쓴



이재훈 목사
온누리 교회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의 1부를 통해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BBC 라디오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이러한 내용이 아주 진지하게 방송되었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책은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살아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그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위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는, 도덕의 붕괴였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위기보다도 더 두려운 위기

는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책의 서론에 해당되는 1장에서 그는 이러한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 그것이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 사사 시대가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보기에도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구약의 사사 시대였고,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무너지는 그 시대의 문제였고, 또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핵심은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자연법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과학 법칙과는 다른 자연법으로, 도덕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도덕률이라는 말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옳고 그름이 우리와 우주에 대하여 명확하게 생각하는 토대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마땅히 그려해야 한다”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도덕 법칙은 집단 본능일까요? 루이스는 이것이 본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덕률이 우리가 연주해야 될 곡이라면, 본능은 그 악보를 연주하는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키를 눌러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도덕 법칙이라면, 그 키와 같은 것은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인간 안에 있는 여러 본능들을 조화롭게 해서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그 자체로 집단 본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간 본성의 법칙은 교육을 통해 주입된 사회적 관습일까요? 루이스는 그것도 아니라 고 말합니다. 모든 시대, 어떤 나라들의 도덕관을 비교해보면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 있으며, 실상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어떤 도덕이 더 우수하고 열등한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본성의 법칙은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교육으로 주입할 수 있는 관습도 아니며,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으면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실재하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루이스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유물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유물론적 관점은 이 물질과 공간의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므로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고 또 알 수도 없다, 많은 우연을 통해서 몇몇 물질들이 인간으로 진화하고 발전한 것 뿐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종교적 관점입니다. 우주의 배후에는 정신과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지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존재로, 우리가 때로는 모르는 목적을 위해 때로는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려는 목적을 위해서 우주를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하

는 것이 종교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과학으로는 이 두 관점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진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과학으로는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서 과학적 관찰이나 실험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대상이 전 우주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인간 본성의 법칙 아래 존재합니다. 이 법칙은 우리를 제어하는 법칙이며, 억누르는 법칙이고,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법칙은 잘 따르는 이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기고 있는 법칙,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와 또 그 무엇인가의 법칙입니다.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법칙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배후에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도덕률, 인간 본성의 법칙을 어기는 행동을 만일 그 만드신 분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절대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순, 죄악, 이 법칙에 어긋나는 우리의 모든 것은 대부분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원형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루이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법칙 아래 우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은 성경에 진노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두고, “어떻게 선한 분이 진노할 수 있는가” 묻습니다. 하지만, 선한 분이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죠.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심판하시기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만일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원수가 되는 상황이므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우주를 다스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순전한 기독교』1장의 논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분이 가장 선하신 분이기에, 절대 선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 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자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원수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존재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깨닫기 전까지 기독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가난한 자의 복을 설명하십니다. 가난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가난을 의미하죠. 인간에게 이 절대적인 선의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 도덕 법칙을 부여하신 그분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절대적인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순을 가지고는 그 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피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절대 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본성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위안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최고의 공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제3의 성 혹은 사회적 성이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인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 저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루이스가 말한 ‘인간 본성의 법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차별 때문에 불안하다”



“내 안에 있는 동성애의 성향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이라고들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루이스는 “옳고 그름이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땅히 그려해야 된다”는 인간 본성의 법칙 아래 살고 있고, 인간이 싸우고 불안하고 갈등을 빚는 원인은 이 인간 본성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만 그런 건 아니죠. 왜곡된 모든 성적 탐욕이나 또 잘못된 거짓 음란 모든 종류의 죄악들 교만 모든 것들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선에서 벗어난, 인간 본성의 법칙에 벗어난 모든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차별 때문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제3의 성이라는 주장은 심지어 자연 과학 법칙에도 위배되죠. 의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염색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성향과 실제 염색체는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옳고 그름에서 이것은 그른 것입니다.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서 옳음을 택하면 평안이 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평안이 옵니다. 그름을 택하면 우리 마음 속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오해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오히려 더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줘도 불안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모든 우주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라는 그 루이스의 말이 사실이며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도덕률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루이스의 관점으로 볼 때, 도덕률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형법으로 강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모순이죠. 몇 개월 전 한 지상파 방송에서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저녁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한 학생이 커밍아

웃을 한 이후로 친구들이 왕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책상이 무너져 있고 또 친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을 따돌린다는 호소를 전한 뒤 그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학생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지요. 그래서 주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갖고도 친구를 따돌릴 수 있고 부모의 직업, 얼굴 생김새 온갖 이유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를 따돌리는 그런 나이입니다. 커밍아웃한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맞는 일일까요. 어떠한 이유로든 친구를 왕따 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인간 본성의 법칙,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률을 교육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줘야 할 일을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시도조차 불필요한 법이다

법의 정신은 도덕의 최대화죠. 왜 법을 만듭니까. 도덕적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법의 정신이죠. 법을 최대화한다고 도덕률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이 감당해야 될 것을 법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 내재된 인간 본성의 법칙은 법전이 없어도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서만 존재 할 수 있는 그 인간 본성의 법칙을 지키면 그 자체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큰 불안을 줍니다. 어떠한 성향과 충동을 통해 그러한 자극이 요구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끊고 본성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도덕이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 본성의 법칙, 이 도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차별과 불안을 없애는, 최선의 행복한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불필요한 법을, 오히려 부작용이 심한 법을 만들어서 도리어 도덕률을 무너뜨리는 법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노력을 도덕률을 함양하고 올바른 창조질서를 가르치는 데로 돌리기 원합니다. 인간은 인간 본성의 법칙을 따를 때만,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킬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날](#)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즌2〉 2020년 11월 27일
강의 내용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요약개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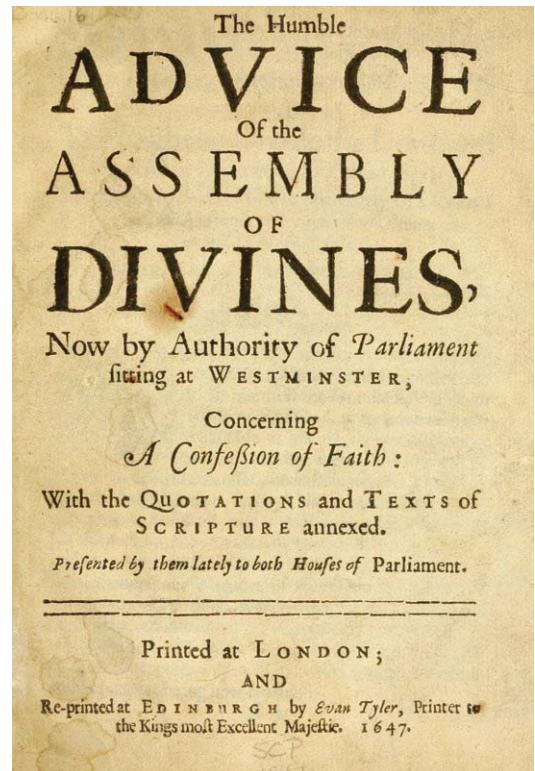
김창섭 안수집사
인천교구
홍보출판부 편집위원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부

잉글랜드의 종교적, 정치적 갈등은 1642년 8월 찰스 1세 중심의 왕당파와 청교도¹ 중심의 의회파 사이의 내전으로 이어졌다. 왕당파는 국교회주의를 옹호했고, 의회파는 청교도주의를 지지했다. 내전 와중에 청교도 지지자의 회합인 웨스트민스터 회의(1643~1649)가 개최되었다.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에서 소집한 총회에서 만들 어진 신앙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한다. 회의 마지막 약 2년 전에는 각국 교회가 사용할 신앙고백과 교리문답, 규율서 등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과 함께 탄생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은 칼뱅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고백이다. 개혁교회의 주요 문서 또는 신조(Creed)로 많이 채택되는데, 현재 한국 장로교에서도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등과 더불어 칼뱅주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주요 신앙고백으로 삼고 있다. 원래의 취지는 39개 신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려는 의도였으나 오랜 기간의 논의와 담론을 거쳐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명확하게 설명된 신앙고백서를 완성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효성 번역 7판). 그러나 1903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타이틀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참가하기로 채택한 제34장 ‘성령에 관하여’와 제35장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 그리고 ‘선언문’은 미국 정통장로교회와 성경장로교회의 본문이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측)의 <신도개요(1969년)>²에 포함되지 않은 채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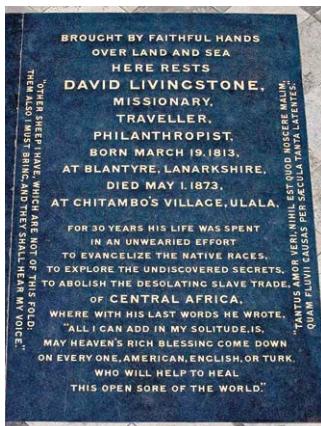
웨스트민스터 회의결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작성했다. 문답 형태의

1 박경수 교수의 『개혁교회, 그 현장을 가다』에 의하면, 당시 청교도는 크게 세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비교적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며 장로교회의 노선을 따르는 장로파, 더욱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면서 회중교회의 노선을 추종하는 독립파, 앞의 두 그룹과 달리 잉글랜드 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리파가 있었다. 이들은 성서 해석, 국교회에 대한 태도, 개혁의 범위 등을 놓고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

2 고 박형룡 박사가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리키는 우리말 옛 표기



뉴잉글랜드 플리머스에 있는
필그림 파더스 기념탑



데이비드 리빙스턴 묘

요리문답(Catechism)은 기독교 교리를 담은 대중용 지침서로서 신앙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Westminster Larger Catechism)은 요리문답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보수적인 장로교 등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단에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19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존 머레이(John Murray, 1898~1975)는 대요리문답의 30~32문항이 신앙고백서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했다. 대요리문답에서 설명된 십계명보다 더욱 정확하고 자세하며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Westminster Shorter Catechism)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표준 문서 중 하나로, 10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7년 4월 29일, 의회에 보고되었고, 소요리문답은 1647년 11월 5일, 대요리문답은 1648년 4월 14일에 보고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장로교회 목사들과 장로들도 임직 서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신·구약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한다고 서약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을 만든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이 서기 960년에 설립했다. 윌리엄 1세(정복자 윌리엄)의 대관식을 거행한 1066년 이후 줄곧 교회의 대관식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왕족의 결혼과 장례식³, 국가적 축하 및 기념행사를 개최한 곳이기도 하다.

3 17명의 군주가 마지막으로 안치된 곳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은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성공회 성당으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영국 왕실의 교회이자 영국 수도의 대표 교회로서, 주교좌성당(cathedral)에 준하는 위상을 지녔지만, 근원이 대수도원(Abbey)이기 때문에 주교좌 성당은 아니다. 다만 종교개혁기에는 잠시 주교좌 성당이었던 적이 있다. 정식 명칭은 과거에는 베네딕트회의 대수도원이었으나, 1559년 엘리자베스 1세가 수도사들을 내쫓으며, 웨스트민스터 성 베드로 참사회성당(Collegiate Church of St. Peter in Westminster)으로 변경되었다.

건축 시기는 960년경 혹은 970년경 초에 성 던스턴이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을 위한 공동체를 세웠고, 1042년에서 1052년 사이 어느 해인가에 참회왕 에드워드가 그 자리에 새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3세기부터 16세기(1503)까지 고딕 양식에 충실히 지어졌으며, 천장의 리브로 만들어진 워플 슬라브의 형태가 대단히 화려하다. 캔터베리 대성당, 세인트 폴 대성당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가톨릭 소속 성당이었으나 종교개혁기에 성공회가 가져갔다.

영국 왕의 대관식, 결혼식, 장례식 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곳이자 잉글랜드와 영국 왕의 장지(葬地)이기도 하다. 그중에서 특히 무덤으로써의 의미가 대단히 큰 곳이기도 하다. 성당 지하에 따로 묘지를 두지 않고 성당 본당 내에 유해를 안치한 이유로 다른 성당에 비하면 내부 공간이 복잡한 편이다. 헨리 7세와 엘리자베스 1세를 비롯한 역대 왕은 물론이거니와 영국 총리들, 아이작 뉴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비롯한 위인들의 무덤이 성당 곳곳에 있다.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 헨리 8세의 장녀로서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메리



제임스1세

1세, 그녀의 이복동생 엘리자베스 1세,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이자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의 어머니 스코틀랜드의 메리(1542~1587)가 모두 이곳에 누워있다. 권좌에 오른 악독한 두 여인 메리 1세와 스코틀랜드의 메리는 곤궁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폐허와 공포로 완전히 뒤흘어버렸다. 스코틀랜드의 메리는 1587년 2월 8일 참수당했으나, 그의 아들 제임스 1세가 1612년 10월 8일 어머니의 시신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했다. 엘리자베스와 메리 1세, 스코틀랜드 메리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였지만 죽어

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나란히 눕게 되었다.

헨리 8세가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가톨릭교회로부터 분리한 후 교회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을 겪었다. 에드워드 6세 때에는 친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메리 1세 때에는 정반대로 로마가톨릭 쪽으로 기울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 이때 프로테스탄트 신자 283명이 화형당했고, 대략 800명의 프로테스탄트가 망명길에 올라 독일과 스위스 등에 피신하여 자신들의 교회공동체를 만들었다. 1558년 11월 17일 잉글랜드의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메리 1세가 죽고, 이복 여동생인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혹독했던 프로테스탄트 박해가 진정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왕위에 오른 후 잉글랜드 교회의 내분을 종식시키고 교회와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일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는 ‘통일령’이라는 법안을 통해 잉글랜드 교회는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의 길이 아니라 ‘중도의 길’을 갈 것을 천명했다. 그리하여 소위 ‘성공회’라고 불리는 잉글랜드 국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

한편, 1570년경 엘리자베스를 폐위시키고 대신 스코틀랜드의 메리를 왕위에 앉히려는 음모가 발각되기도 했다. 중도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엘리자베스의 정책이 결국 로마교회를 배신하는 절차이며 엘리자베스를 파문했다. 프로테스탄트는 엘리자베스의 타결 정책이 어정쩡한 타협에 불과하다며 잉글랜드 교회 안에 남아 있는 로마교회의 잔재를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가리켜 ‘청교도’라고 불렸다. 이렇게 엘리자베스 시대 이후 17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로마가톨릭, 성공회, 청교도 사이에서 지속적 갈등과 논쟁이 이어졌다.



메리1세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이유

1643년 영국 의회가 당시 국왕이던 찰스 1세가 의회와의 내란(청교도 혁명) 중에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교리, 권징 등의 기준을 수립할 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했다.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 총대들과 의원,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학식 있고 거룩하며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이 성공회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였고, 이 회의는 5년 동안 지속되었다. 회의 결과로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다. 이때

신앙고백서 외에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도 작성했으며 이듬해 1648년 영국 의회에서 공인되었다.

한국 장로교교회의 표준문서가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문서들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⁴에 의해 미국 장로교회(PCUSA)의 교리적 표준문서로 인정되었고,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 한국 장로교 교회의 표준문서로 통용되고 있다. **만남**

⁴ 제임스 1세가 1618년 <스포츠 선언>을 통해 양궁을 비롯한 일부 종목의 스포츠 활동은 주일에도 허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교도 진영 사이에 갈등을 증폭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제임스 1세의 아들인 찰스 1세가 1633년에 스포츠 선언을 재천명하자, 소수의 분리파 청교도들은 개혁신앙에 따른 새로운 잉글랜드를 설립하기 위해 신대륙으로 떠났다. 1620년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청교도와 합류해 잉글랜드의 플리머스를 떠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뉴잉글랜드에 도착한 필그림 파더스가 바로 그들이다.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꿁니다!

다시, 가정을 바라보는 사람들

최근의 연구 및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가정의 중요성과 함께 하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는 가정과 멀어지는 현상이 참 많았습니다. 쫓기듯 살아온 한국 사회에 불어 닥쳤던 가족해체의 바람들, 점점 더 늦어지는 취업과 결혼, 황혼 이혼, 비혼주의자 및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1인 가정. 더욱 심화하는 개인주의 경향으로 혼자 사는 삶에 관련한 문화 등은 ‘함께 살아가는 가정’과 더욱 멀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다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의견의 응답 비율이 높아졌고, 가정 중심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한국 교회 성도들도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 중 “가정”이 중요하다고 가장 높게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꾸어야 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이기에 영락교회의

‘오이코스(가정, 집) 말씀묵상과 가정예배’ 사역이 더욱 소중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행진뿐만 아니라 시대적 영적 가뭄을 해결할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이코스, 그 가정이라는 꿈

1. ‘오이코스’는 다음과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 ① 가족이 모이는 장소 (공간)
- ②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
- ③ 가족이 함께 행하는 일 (사명)

공간과 가족, 사명은 가정의 기초적 모습입니다.

2. ‘오이코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꿈입니다.

- ① 애덴동산이라는 가정의 장소를 만드셨고 (공간)
- ② 그곳에서 함께 사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창조하셨으며 (가족)
- ③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사명)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꿈 즉 최초의 비전을 알 수 있습니다.

3. 예수님도 오이코스적 교회를 비전으로 세우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태복음 16:18절) 말씀의 원어가 ‘에클레시아 오이코도메오’인데, 그 뜻은



백성우 목사
교육전담

어린이주일 (5/1)	① 가족이 함께하는 유아세례 (찬양예배) ② 영·유아·유치부 가정을 위한 '모모야' 행사 (베다니광장) ③ 아동부 친구들의 찬양 축제 '멜로디 온' (베다니광장) ④ 주제 강연 - "가정이라는 꿈을 다시 꾸라" (신형섭 교수, 장신대)
어버이주일/ 가족주일 (5/8)	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 세대 예배 (2, 3, 4부) ②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 ③ 가정 주제 사역 박람회 '요람에서 천국까지' ④ 가정 신앙교육 자료 전시회
교육주일 (5/15)	① 교육 주일 특별예배 (찬양예배) ② 브라보 영락 쌤 (교사 위로 행사)
청년선교주일 (5/22)	청년선교대회 (5/20~22, 강사: 서종오 목사, 동승교회)
가정예배학교 4기	① 취지 : 가정예배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실제 훈련 ② 일정 : 5월 22일 주일부터 5주간 ③ 장소 및 시간 : 기념관 503호, 오전 11:30~13:00 ④ 참여 : 15~20여 가정 (소그룹으로 운영)

“내 교회의 오이코스를 세우겠다”입니다.

- ① 부르심 받은 자들(에클레시아)을
가족(오이코스)으로 세우시고 (가족)
- ② 자기의 집(장소)을 내어드려 영적 가족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며 (공간)
- ③ 합력하는 복음적 삶을 실천하게 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에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사명)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이라는 꿈을
다시 꾸고자 합니다.

- ① 가족이 한 공간에서 마주 대하는 가정!

② 흩어졌던 가족이 함께 나누고, 들려주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가정!

③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가정!

5월 원포인트 교육사역 -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꾸라”

교육부의 5월은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꾸라”라는 주제로 교회의 모든 성도 및 가정이 함께하는 원포인트 교육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만남**

함께 서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부 교사로서 코로나 비대면 시기의 사랑부를 소개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비대면 상황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던 우리의 예배입니다. 2021년 사랑부의 표어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부’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랑부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심하여 온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은 주일 아침 예배 시작 전 학생에게 전화하여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전화하여 마침 기도를 했습니다.



문호선 권사
서대문·은평교구
사랑부 교사

이전에도 전화했지만, 비대면 시기에 학생과 더 자주 대화하고 학부모님과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전보다 더 친밀도가 높아졌습니다.

비대면 예배였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는 예배 시간을 지키며 경건하게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는 여러 선생님의 헌신으로 순조롭게 드릴 수 있었으며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 선포로 크게 은혜받고 누렸습니다. 봉헌송, 성경암송 영상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하여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영상 부분의 비중이 커지자 영상을 전담하는 팀이 필요하여 영상부를 결성하고, 선생님들이 헌신하여 많은 양의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신앙

고백들과 깊은 감동 있는 영상들을 담아주셨고 좋은 방송 장비를 투입하여 한층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담긴 개별 영상이 모였을 때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신앙공동체라는 것이 각인되었습니다.

사랑부 일상의 중심에는 <말씀대로 365>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365> 교재를 학생들 가정에 보내고, 담임선생님들은 매일매일 김운성 위임 목사님 영상을 보내며 학생의 안부를 묻고 하루의 축복과 기도가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가정에서 목사님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돋고, 자녀가 쓴 성경 구절의 사진을 선생님에게 전송했습니다. 글씨 쓰기 어려운 자녀는 부모님이 손을 잡고 한 자 한 자 적었습니다. 사진 속의 성경 구절 글씨를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연계 교육을 통해 말씀 교육을 피드백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며 <말씀대로 365>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사랑부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꾸준히 하여 성경 필사를 완필한 학생이 있어서 큰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생일 축하도 변함없이 진행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축하 메시지를 음성 녹음하고 영상 편집하여 사랑부 친구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었고, 축하 시간을 통해 만나지 못하는 사랑부 친구들의 모습과 근황,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Zoom을 사용하여 교사회의 안건을 진행하며 선생님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지요.

교회교육행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봄·여름 성경학교도 차별화된 신앙 성숙의 장이 되었습니다. 봄성경학교는 2021년 2월 27일부터 28일 까지 ‘눈으로 주를 봐옵나이다’라는 주제로 진행했고, 여름성경학교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하고, 사귀고, 누리고’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진영채 목사님과 이창근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웠고 선생님들은 받은 달란트를 유감 없이 발휘하여 비대면 봄·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때에는 사랑부에서 발송한 ‘티셔츠 꾸미고 패션쇼 하기’, ‘과자, 비스킷, 젤리 등의 간식으로 접시에 아름다운 모양 만들기’를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정말 다양한 티셔츠 꾸미기, 당당하고 멋진 포즈 등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통통 튀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학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말씀과 연계하여 ‘교회 만들기’를 했습니다. 인쇄된 종이를 접어 교회를 완성하여 배경 판에 붙이고 종이 교회 안에 조명을 넣어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성된 종이 교회에 불을 켜자 교회가 환해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만들기를 하며 예배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혹시 사랑부의 연극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랑부에는 전통 있는 연극부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랑스러운 연극부서의 일원입니다. 비대면으로 연극 활동이 중단되고 공백 기간이 길어지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연극 ‘붕어빵의 비밀’로 성도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학생들은 Zoom으로 연극을 연습했습니다. 2021년에는 연극 부장님의 지도와 학생, 학부모의 열정으로 비대면 연극을 두 번 올리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현장 연습과 Zoom을 병



행하며 연습하여 지난 성탄절에는 ‘삶으로 나타내요’라는 제목의 영상 연극을 무대에 올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학생들은 연습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더 노련한 감성을 표현하여 매우 놀랐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은 중보기도 요청이 매우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시간을 정해서 같은 시간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했던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 주셨고 그 응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하신 주심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 보다 사랑부를 뜨겁게 지키시며,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심에 너무 감격했던 시간. 그 때의 신앙고백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두 손 모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을 비대면의 상황에도 순종과 열정

으로 맡은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씩 거리두기 규제가 풀리면서 비대면예배가 대면예배로 전환되고 있는 즈음,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을 예배 자리로 오게 하는 일, 예배에 집중하도록 돋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전과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생길 때,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올리는 괭과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비대면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2022년에도 사랑부를 씩씩하게 행진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기독교의 그릇

제3 천년의 첫 번째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지구촌 공동체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시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졌으며, 종교적으로 절대화하던 개념적 정의들이 탈피하지 않으면 박제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도 주가가 내려갈까 염려하는 남한의 자본주의는 굶어 죽음을 면하고자 인간애를 팔아 생명을 연명하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에도 깊게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이순신 장군의 말에 빗댄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풍자가 사회문화 속에 깊이 깃들었고, 로마도 못 박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신이 여차하면 고물 장수에게나 팔려나갈 것 같은 현실을 대면하여, 박해를 피해 도망하던 베드로의 질문으로 기독교가 걸어야 할 걸음을 상기해 봅니다.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언어 구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22)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에는 다양한 예전(liturgy) 용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성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신앙고백을 하느냐로 누구를 따르는 공동체인지 분간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도 주일의 교회 출석, 종교에 따른 대체 병역, 종교 커밍아웃 등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종교 유무를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삶의 자리에서 종교적 도덕성의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독교 언어가 교회 안에서만 이해되는 폐쇄적 용어로 변질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본래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의 언어가 일부 특정한 것을 지칭함으로 확장적 기능을 상실한 채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 입구까지 봉쇄해버리는 호들갑의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기독교 특유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가림으로써, 수십 세기 쌓아온 기독교 신학을 오히려 수준 낮게 여김에 따라 초래된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천년의 과업은 ‘정의’된 언어로부터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리 둘 곳

신인류 세대에게 갈릴레이가 지동설(태양이 우주의 중심)을 주장하다 종교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중세



윤연상 전도사
북한선교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하늘(위)에 계셨고,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우주(밖)에 계셨습니다. 그러다 우주가 관찰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은 내재(속)하셨고, 정신분석과 뇌 과학의 발전으로 하나님은 머리 둘곳을 잃으셨습니다. 반성경적이라 오해되는 과학의 진보가 하나님의 거처(존재)를 빼앗는 과정에서 신앙을 잃거나 포기하는 신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 선교사가 전한 서구신학과 함께 부흥사를 앞세워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던 교회의 모습은 마치 신데렐라의 의붓어머니 트리메인 부인이 진짜(신앙교육)를 무도회에 참가시키지 않은 꼴의 결과입니다. 앞선 갈릴레이의 종교재판은 현대에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종교언어와 신조에 하나님을 가두어 인정하거나(믿음), 인정하지 않거나(불신)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온 열방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

나님을 찬송하며 따른다는 고백과 모순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명한 물리학자의 말을 인용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현대 교회를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하찮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못된다.” - 폴 데이비스 -

수천 년 이성을 통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바울, 텐트메이커

바울의 선교 여정에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군사력을 동반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담보로 자발적 충성심을 격발하는 정치적 체제였던 ‘후

견인-피후견인' 제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는 피라미드 구조로서 피후견인은 실상 경제적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행동은 여타 연설가들처럼 각 지역에 후견인을 두고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지만, 바울은 때때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후견인이 듣고자 하는 연설이 아니라 복음 증거가 여행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자립적 텐트메이킹은 현대 목회자의 생계적 이중직과 목회신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부정적 인본주의에 물든 기독공동체가 가진 근본적 오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아닐까요? 인간과 사회의 이해가 결여된 허공의 메아리나 독백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사교 집단과 흡사한 교회공동체, 성도의 입맛을 채우기 위

한 자극적 프로그램, 설교의 뷔페식 나열 등은 바울 정신으로 저항해야 할 요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소 간단하고 짧은 단락과 질문이었습니다만, 정체된 교회가 고수하고 있는 부족신앙, 과거의 신조, 종교우월주의, 유사 제국주의 선교 등으로부터 현대판 출애굽을 시동해서 탈출이 아닌 구출의 역사로 고백함으로써 완성될 기독교 역사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Ecclesia semper reformanda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안남

“

필자가 태어난 포항의 랜드마크 '상생의 손',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조각상이
마치 구원을 애태게 희망하는 손짓으로 보인다.

”



침묵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담하는 경청의 비결

성령님께 배우는 상담

밝고 건강한 신앙을 꿈꾸는 명랑상담입니다. 계속해서 상담의 자리에서 만나는 삼자(三者) 중 하나인 상담자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담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담자(상담을 요청한 사람)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의 실체가 상담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 상담가라고 할지라도 한계와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상담을 요청할 때 난감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상담자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함께 상담을 하고 또한 상담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保惠師, Counselor, 요한복음 14:26), 상담을 해주시는 분

으로 지칭(指稱)합니다. 그분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신실하게 터무니없는 우리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며 상담(相談)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청을 통해서 상담하는 존재로 시나브로 자라납니다.



강승훈 목사
강북·도봉교구
상담부



경청(傾聽)의 기술

상담에 있어 경청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청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상담의 기술입니다.

삶에서 만남의 흔적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사람들과 나누는 기도를 돌아보면 어처구니없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마구 쏟아낸 말들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로인한 우리의 경솔함이 좋은 관계를 끊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지만,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경청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청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경청의 훈련, 침묵(沈默)

이렇게 놀라운 경청을 어떻게 터득하고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祕訣)은 침묵을 배울 때에 가능합니다. 침묵의 공간(空間)를 얻으면, 존재(存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침묵에 관련한 아주 재미있는 시(詩) 한편을 소개합니다. 기형도 시인의 ‘소리의 뼈’입니다.

김교수님이 새로운 학설을 발표했다
소리에도 뼈가 있다는 것이다
모두 그 말을 웃어넘겼다, 몇몇 학자들은
잠시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 김교수의 유머에 감사했다
학장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일 학기 강의를 개설했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장난삼아 신청했다
한 학기 내내 그는
모든 수업 시간마다 침묵하는
무서운 고집을 보여주었다
참지 못한 학생들이, 소리의 뼈란 무엇일까
각자 일가견을 피력했다
이군은 그것이 침묵일 거라고 말했다
박군은 그것을 숨은 의미라 보았다
또 누군가는 그것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모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에 접근하기 위하여 채택된
방법론적 비유라는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너무 난해하여 곧 묵살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 학기부터 우리들의 귀는
모든 소리들을 훨씬 더 잘 듣게 되었다

20세기의 성녀 마더 테레사는 그녀의 책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침묵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경청하면, 그때 침묵 속에서 주님이 말씀한다. 그러면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입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조용히 경청해야 한다.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랑과 공감과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 내 입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상담하기에 앞서,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경청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시선(視線)을 가진 깨어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을 통해 상담 중에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한 상담자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공감,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차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했던 치유와 회복을 다시 내담자에게 선사(善事)하는 주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명랑한 상담을 위한 세 가지 약속

이렇듯 신비로운 상담 사역을 위해 감히 용기를 내신 모든 상담자에게 3가지의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면서 이번 회에 나누는 상담자에 관련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상담자들은 침묵의 공간에서 경청을 배우기 위해 충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충분한 기도라는 말은 기도를 하는 일에 있어 양(量 : 시간)과 질(質 : 집중)을 모두 포함한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 충분히 성령 하나님과 상담하면서 경청의 근간이 되는 침묵을 습득하십시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27)



두 번째, 경청은 고된 노동입니다. 공감과 수용이라는 아름다운 말은 고통스러운 자기부인과 희생이라는 실질적인 헌신의 생활이 담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1회기(回期) 때, 40분 이상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경청할 수 없을 뿐더러 상담자의 정서와 마음이 내담자의 상처(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병리)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전문 상담가들 역시 사역에 적용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상담 횟수를 늘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상담 시간만큼 기도와 독서, 산책 등 홀로 있는 휴식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휴식의 시간이 있어야 자신을 충전할 수 있고 내담자를 진단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상담 가운데 개입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얻게 됩니다.
명랑상담! **만남**

FWIA 3기 아버지학교 가정과 직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아버지를 초대합니다



역시 관계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와 교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정 5월 19일 ~ 6월 23일(매주 목요일, 6주)
장소 온라인 Zoom, 목요일 오후 8시~10시
인원 20명(선착순)
회비 3만원
문의 상담부(봉사관 303호)
 전화: 02-2280-0171, 010-4198-0063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은 주님이 주신 이 땅의 가나안입니다

새벽 6시. 오이코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나의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들어주신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을 들어서는 길은 매일 새롭고 설렙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 만납니다. 만남을 통해 어르신의 얼굴과 눈빛에서 오늘 하루 지내게 될 맑음과 슬픔을 봅니다. 맑은 어르신의 눈빛과 마음에서 기쁨을 나누고, 슬픈 어르신의 눈빛에서 슬픔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매로 인해 하루에도 맑음과 슬픔이 수십 번 바뀌는 행복한 광야의 인생을 사는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일터를 허락하신 주님 은혜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의 이른 아침 시작은 모든 어르신들과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샬롬! 어르신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어르신들과의 인사지만 언제 들어도 새롭습니다.

아이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내 이름도 알고 안심이 가네. 오랜만이야, 어제는 안보이던데 무슨 일 있었어? 어디 아팠던 거야? 보던 사람이 안 보이면 불안해. 예뻐, 최고야, 정말이야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어떤 어르신은 “원장님!” 하며 군대 경례 인사로 반갑게 맞아주시거나

오늘 옷이 너무 예쁘네. 젊어서 좋겠어,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근데, 이리 늙어 버렸어.

하시며 젊은 과거 추억들을 나눠 주시기도 하고, “원장님 오기만을 기다렸어.” 하며 꽁꽁 숨겨 두신 간식을 잔뜩 챙겨주며 손가락으로 죄고라고 표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나는 원장님의 제일 좋아. 나랑 동창이잖아. 나 보려 온 거지? 우리 친구잖아. 나는 100세가 되도록 마스크 안 써도 아프지 않고 살았어. 요즘은 매일 원장님과 직원들, 원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고, 손을 꼭 잡고, 손등에 뾰족도 하고, 꼬오옥 안아도 주시며, ‘원장님 사랑합니다.’를 표현해 주십니다. 간혹 어르신 중에서는 “너무 오래 살았어. 어여 하나님 곁으로



최영순 집사
강동·송파교구
영락노인전문요양원장



가야 하는데 말이야.”라며 말씀하실 때면 친정어머님의 고백처럼 들려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힘들지, 이리 큰 곳을 지도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사람을 부려봐서 알지 사람 다루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주님이 크게 쓰려고 하는 거야. 늘 기도해야 해. 주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내 마지막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지

매일 똑같은 대화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웃음꽃이 핍니다. 항상 예쁜 말로 응원해 주는 어르신들이 옆에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이렇게 나의 일상은 어르신과 함께 시작하고 어르신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일터에서 믿음의 선배 어르신들의 인생을 듣고 나누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요양원에 계시는 96세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있네. 봄이 왔어. 들판에

새순이 올라오는 나무와 꽃을 보면 알 수 있지. 어머 개나리꽃이 됐네. 근데 저건 무슨 꽃이야. 이쁘네. 세월은 참 빨라 그치? 그리고 속이는 게 없어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봄. 따스한 봄을 맞이 했지만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현시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의 가족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며 흡족하게 변함없이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더 가득 채워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13~14)**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 40년 광야의 삶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바알 숭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기에 멸망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세대에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에게 감사함을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거저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며 살아온 일상의 삶을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저의 가나안의 삶에 찾아온 광야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4월 18일(월)부터 재개되는 비대면 면회로 사랑하는 가족과 어르신들이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더 많이 보고 싶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가정의 달인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5월 6일에는



모든 어르신들을 모시고 특별행사를 계획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곳. 저희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은 영락의 가족공동체로서 행복한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의 가족공동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만남**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설립배경 및 목적

(고)한경직 목사님 추모 10주기와 영락교회 65주년 기념사업으로 2010년 12월 1일에 개원한 경기도 하남시의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은 노후가 행복한 어르신들의 공동체 실현을 미션으로 ‘서로의 인권을 존중되는 공간’, ‘사랑이 감동이 되는 살고 싶은 공간’, ‘감사와 신뢰가 넘치는 일하고 싶은 공간’이라는 비전으로 어르신들이 하나님 나리인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도록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74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시며, 영락교회를 섬기는 어르신이나 가족의 입소 비율이 전체의 40%를 넘는 등 영락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입소 선정기준 및 이용방법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5등급 중 시설급여 어르신들이 입소 신청을 통해 입소할 수 있으며, 입소 신청 방법은 영락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https://ynsenior.com/>) 또는 시설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소문의: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총무팀 031)791-3729

척추의 골절

제가 처음 정형외과의사가 되었던 시절에는 사고를 통한 외상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6년 이 지난 지금은 그 시절과 달리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외상과 퇴화가 겹쳐서 생기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노인의 골다공증성 골절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크게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일상의 움직임에서도 쉽게 발생합니다. 이는 뼈가 취약한 것이 원인이므로 취약 골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고관절(엉덩이 관절) 골절은 주저앉는 정도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90세가 넘었거나 중대한 지병이 있는 경우, 보통은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 상태라도 고관절에 생긴 골절은 수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이유도 있지만, 수술이 아니고서는 뼈를 붙게 하거나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술받지 못한다면 1년 이내에 60%가 사망하게 되며 성공으로

수술했더라도 1년 이내에 30%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고관절 골절은 여생을 바꿔놓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취약 골절은 척추에 생기는 골절입니다. 전

체 골다공증성 골절 사례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며, 앞의 고관절 골절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40%의 환자가 자신의 척추 골절을 모른 채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척추골절은 일어나는 동작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오랜 시간 앉아있다 허리 근육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동작에서 골절이 발생합니다. 이때 물건을 들고 일어선다면 위험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그런데 2주 이내에 초기의 극심한 통증이 반 이상 감소하며 누웠다 일어나는 동작은 힘들지만 걸어 다니는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40%가 진단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척추 골절이 중요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번 부러진 척추뼈는 이후 연쇄적으로 쉽게 부러집니다. 즉, 두 번째 척추 골절이 일어날 위험이 5배 증가하고 세 번째 척추 골절이 일어날 위험은 9배 증가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척추가 연쇄적으로 골절되면 허리가 앞으로 굽는 변형이 생겨 일명 ‘꼬부랑 허리’가 되고 맙니다.

둘째, 척추 골절은 머지않아 매우 치명적인 고관절 골절이 따라올 수 있다는 위험신호입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므로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자신의 병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척추 골절이 그 경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10년간 골다공증의 약물치료는 비약적인



안동기 안수집사
강동·송파교구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발전을 하여 골절 발생의 50% 이상을 약물치료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척추 골절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치료 뜻지않게 골다공증 자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추가하여 발생할 수 있을 중대한 골절을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척추 골절 환자의 100명 중 10명에게서 부러진 뼈의 괴사가 일어납니다. 초기에 생겼던 심한 통증은 점차 감소하지만, 골절 당시 뼈의 혈관이 손상된 일부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뼈의 괴사로 인해 뼛속이 덩 비게 되어 척추가 내려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줄어들던 통증이 다시 심해지



고 그와 더불어 마비도 발생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자체로 마비되지는 않지만, 이렇듯 2차 함몰로 인한 허리 변형과 함께 다리에 마비가 오는데, 이는 보통 골절 후 3주에서 12주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척추 골절을 발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낙상하지 않았어도 움직이다 빼끗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 허리가 아파서 일어서는 것이 힘들어지면 병원에서 검사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골절 초기에는 방사선 영상 검사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단순히 허리를 빼끗한 것으로 진단받고 진통제만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통증 때문에 일어나기 힘든 증상이 1주 이상 지속하면 반드시 다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러진 척추가 내려앉은 것이 비로소 X선 사진에서 보이게 됩니다. 만일 정황상 골절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면 처음부터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으면 확실하게 바로 골절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병원을 방문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 허리 염좌로 치료받더라도 통증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재검사받아 혹시 척추 골절이 아닌지 그리고 골괴사에 의한 2차 함몰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적인 치료법은 1주간 침상 안정기를 갖고 2주 차부터는 보조기를 착용한 채 제한된 실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1개월에 한 번씩 방사선 촬영 검사를 하여 보조기를 벗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3개월간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침상 안정과 활동 제한을 장시간 하게 되면 뼈뿐 아



나라 주변 근육도 약해져서 추가적 골절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된 환자에게는 기다림 없이 골절 부위에 골시멘트를 주사하여 단번에 굳혀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강조했듯 부러진 뼈에 대한 즉시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 자체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척추 골절 및 더 무서운 고관절 골절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한다 해도 일부 환자 중에는 피할 수 없이 척추 뼈의 2차 함몰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허리 변형과 다리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수술을 피할 수 없는데 그리 간단치 않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면 다리 마비는 영영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평생 튼튼한 뼈를 가지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뼈가

계속 만들어지다가 어른이 되면 만들어지는 뼈와 없어지는 뼈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더 나이가 들면 만들어지는 속도의 4배로 없어지는 것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예외는 없습니다. 젊은 시절의 운동선수도 피할 수 없고 평생 건강식을 잘챙겨 먹는다고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법칙이 그러하니 우리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현명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노년기의 골다공증성 골절은 여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중 가장 흔한 척추 골절은 다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의심과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때 골절과 함께 골다공증 자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골괴사에 의한 치료 실패가 종종 있으므로 수개월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만남**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갈릴리찬양대 40년

하늘로 부터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며

갈릴리찬양대 대장 임우섭 장로, 총무 송진국 집사



영락교회 갈릴리찬양대 40주년 기념(2022년 3월 20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할지어다 할렐루야”(시편 150:6)

갈릴리찬양대는 영락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일 찬양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입니다. 1982년 2월 3일 수요일 첫 찬양을 시작으로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선두에서 한국교회 부흥기를 이끌던 영락교회는 예배 장소가 좁아 1982년 2월부터 4회 드렸던 주일예배를 5회로 저녁에만 드렸던 수요예배를 오전과 저녁

으로 확장함으로써 갈릴리찬양대, 베들레헴찬양대를 새로 창립하게 되었고 그 후 1991년 1월부터 갈릴리찬양대가 주일 저녁 찬양예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지휘자 오세종 선생님부터 지금의 조성환 장로님까지 총 7분의 지휘자가 지도하셨습니다. 특히 독일 유학을 떠나시기 전 2년간(1987년

~1988년) 지휘하셨던 조성환 장로님은 2000년에 귀국 이후 지금까지 갈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찬양대는 매 주일 3시에 권혁일 지도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회를 하고 찬양을 연습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은, 찬양 연습 전마다 우리 찬양하는 의미를 다시 새기며, 찬양 연습을 통해 우리가 먼저 은혜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와 은혜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코로나로 전 대원이 모이지 못할 때는 밴드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연주회에도 많이 참여한 갈릴리찬양대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은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성회 찬양’, 1985년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음악회 찬양’, 1998년 ‘제1회 성 가합창제 찬양(류관순 기념관)’, 1990년 ‘기독교

방송창립 기념 음악회(예술의 전당)’, 1991년 ‘성 가합창제(세종문화회관)’, 2010년 ‘한경직목사 10주년 기념 평화 화해 컨퍼런스 개회예배 찬양’, 2013년 ‘북.중 접경지역 순회 연주’, 2014년 ‘국회 조찬기도회 찬양(국회)’ 등 총 60여 회 이상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원은 주일 아침부터 저녁 찬양예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자입니다. 2020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유조차도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함께하는 찬양을 중지하게 된 찬양대는 독창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갈릴리찬양대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이사야 43:21)’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을 멈출 수 없다



영락교회 갈릴리 찬양대 일동
(1982. 11. 7.)



는 생각으로 벼추얼 콰이어로 찬양하기로 하고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습할 수 없기에 매 주일 오후 3시~5시 연습 시간에 온라인 밴드 생중계를 통해 대원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중계를 보며 연습하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비대면이어도 함께 찬양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21년 11월 28일 ‘교회창립 76주년 기념 칸타타’를 갈릴리찬양대가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당시 방역 지침에 따라 8명의 대원으로만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창립을 감사드리는 찬양을 최대한 많은 대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벼추얼콰이어¹를 결정하고, 영상을 통한 연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원들을 모아 온라인 연습 후, 장신대 김신웅 교수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참여한 대원들은 과정이 무척 힘들었던 만큼 준비하고 찬양하는 4개월간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 지난 3월 20일 본당에서 <갈릴리 40주년

기념 음악예배>에서 70명의 대원이 같은 곡을 함께 찬양했는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다시금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흥해를 가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지난 40년 갈릴리찬양대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행진하여 가라’ 표어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복음 전파와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며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갈릴리찬양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휘자 조성환 장로 인사

유학 후 갈릴리찬양대로 회귀한 지 어언 23년이 되었습니다.

1986년 28세의 어린 나이로 갈릴리찬양대 지휘자가 되어 지휘봉을 맡았을 때를 추억해 봅니다.

¹ 대원들이 각각 집에서 자신의 파트로 찬양 영상을 촬영하여 지휘자에게 보내면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편집하는 것



2021.11.28.교회창립76주년기념 음악예배(버츄얼콰이어)

지휘자보다 어린 대원은 한 사람도 없었던 당시 모든 대원이 저의 어머니요, 아버님이요, 형님, 누나들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찬양하셨던 어르신들은 아들 같은 저를 지휘자로서 깍듯이 예우해 주셨고 지휘자로 취임한 지 7개월 후인 12월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직 어린 26세의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그때의 대원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처음 갈릴리지휘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부모님을 대하듯 지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합창단과 찬양대가 다른 점은 아름답고 조화롭게 잘 준비된 음악을 추구하는 목적은 같지만, 음악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에 따른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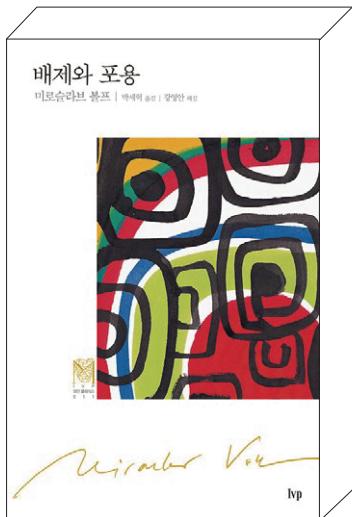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형편에 순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찬양을 준비하기 어려웠고 독창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했으며, 독창에서 중창으로 확대되었을 때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창에서 인원이 더 확대되었을 때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첫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소요리문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노래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울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지휘자인 저는 우리 대원들이 먼저, 연습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분출하는 영적 감동을 품고 예배에 들어가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락의 성도님들께서 갈릴리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며 찬양대 찬양의 영이 성도님들의 영과 어우러져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

배제와 포용



미로슬라브 볼프 지음 / IVP / 2021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동유럽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동유럽 출신 신학자가 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냉전 시대의 영향으로 인해 동유럽은 우리에게 덜 알려진 지역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미로슬라브 볼프도 동유럽 크로아티아 출신 신학자로서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개하는 그의 책 『배제와 포용』은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에 의해 오늘의 종교사상을 형성한 20세기의 고전 100권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크리스천센추리”는 이 책을 지난 25년간 나온 책 중 가장 중요한 신학도서로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볼프는 음악·정치학·교육 등 5개 영역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수여하는 그

로마이어상(2002, 종교 분야)을 수상한 만큼 『배제와 포용』은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볼프는 현재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2018년 5월, 장신대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에 초대되어 한국의 신학생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프와 그의 책을 추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구축되어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통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볼프는 국가·인종·이념의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인종·이념 등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볼프는 체코인과 독일인 사이에서 오순절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크로아티아(구 유고슬라비아) 사람이며, 현재는 미국에서도 다문화에 익숙한 LA에 사는 사람으로 다양한 인간적 편견에서 비교적 벗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학을 연구하며 정의를 위한 투쟁과 궁극적 화해에 이르는 길에 대한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볼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로마서 15:7) 말씀을 통해 ‘받아들임’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포용(포옹)’이라는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는 과정을 하나님의 ‘포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두 팔을 벌려 불순종한 ‘탕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경건하지 않은’ 이들을 향해 팔을 뻗어 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받아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볼프는 폭력에 대한 십자가의 도전을 읽어내며, 예수님의 방법으로 분쟁과 다툼을 이겨낼 것을 주장합니다. 십자가는 패배함으로 사탄의 세력을 쳐서 이긴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됨으로써 변화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심의 재설정을 통해 타자를 향해 자아를 개방하고 타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고 자신 안에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볼프는 악인과 원수를 포함해서 ‘타자를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진실과 정의와 평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약 500페이지 정도의 두꺼운 책『배제와 포용』은 내용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역사 속에서 ‘복음통일’을 기도하며 인내하는 한국 그리스도인이 꼭 읽어봐야 하는 책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음미하며 읽는다면, 도전하는 분들의 영성과 지성의 폭을 확장하여 시야를 넓혀 줄 것입니다.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만남**



이후림 목사
인천교구
전도부총괄 호산나찬양대



영락 오이코스 묵상집 2권 발간

오이코스(Oikos) 2권이 나왔다. 영락의 가정은 이 묵상집을 활용하여 매일 예배와 묵상을 하며 말씀위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묵상2집은 5월 1일 첫 주일을 시작으로 1집에 이어 제18주(5월 2일)부터 제35주(9월 3일)까지의 일정을 담았다.

한 권당 1천원으로 4월 30일까지 주일에는 봉사관 앞과 베다니광장 부스에서, 평일(화~금 : 9시~17시, 토 : 9시~12시)에는 봉사관 1층 새가족부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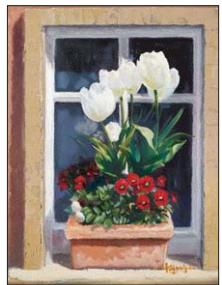
빛과의 대화

이 그림은 15여 년전 부활절 즈음하여 독일을 여행하던 중, 우연히 한 골목에서 “빛과 대화 하듯 아름답게 피어 있는 하얀 툴립”을 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빛이 있음에 잠들었던 생명이 깨어나는 순환의 축복』에 영감을 받고 캔버스에 옮긴 작품입니다.

툴립은 잘 알려진 대로, 알뿌리(구근)식물로 써, 심은 알뿌리는 그 해에 꽃을 피워 꽃을 맺음으로 수명을 다하고, 다시 새로운 알뿌리들이 내년을 위해 생명의 ‘알’을 품는 형식으로 번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주님

의 사랑에 빗대어, 주님의 우리를 위한 ‘조건 없는 희생’이 땅 속

의 ‘알뿌리’와 같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허락된 풍성한 삶을 ‘찬란한 툴립’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희생의 알뿌리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은 『빛과의 대화』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눈부신 툴립과 같은 찬란한 내일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안남**



김경인 권사_서대문·은평교구

교회소식

‘십자가-거꾸로 보는 세상’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4월 11일(월)부터 4월 16일(토)까지 매일 6시(토 6:30) 열렸다. ‘십자가-거꾸로 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매일 새벽 본당과 온라인 생중계로 각 가정에 전파되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기도회 기간 ‘거꾸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그 사람과 순서를 바꾸는 기도’, ‘시험과 악을 이기기 위한 기도’ 등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말씀을 통해 “낫아지고 비우는 십자가의 거꾸로 삶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며, 절제와 비움으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도전에 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도들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거꾸로 삶’을 살기로 다짐 한 귀한 영적 결단의 시간을 체험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성금요예배, ‘그도 예수의 제자다. 그가 예수의 제자다.’



고난주간이었던 지난 4월 15일(금) 오후 7시30분 본당에서 성금요예배가 있었다. 이날 예배는 영락교회 문화선교부에서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 뮤지컬이 영상으로 펼쳐지며 시작되었다. 이 공연은 아리마대 요셉의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라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비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믿음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는 믿음의 시험대 위에서 있는 우리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어 박성은 목사의 ‘그도 예수의 제자라(마태복음 27:57~61)’라는 제목 하에 ‘하나님은 망설이는 자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쓰신다’는 말씀을 전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을 향한 ‘그도 예수의 제자다’ 그러나 훗날 ‘그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기록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는 목사님의 잔잔한 말씀과 함께 성금요예배를 은혜로이 마쳤다. 특히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뮤지컬을 제작한 뮤지컬팀 위트니스와 청년부, 고등부 지체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한 문화선교부팀에 감사함을 전했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창립80주년 비전위원회 출범예배 드려

앞으로 3년 후에 맞게 될 교회 창립80주년 기념을 앞두고 지난 4월 10일 주일 찬양예배 시 창립80주년 비전위원회 출범예배를 드렸다.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순미 장로의 인도로 부위원장 정천우 장로의 기도, 김운성 목사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시무장로의 특송이 있은 후, 김순미 위원장이 나와 “80주년 비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하여 출범 선포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써 계획한 비전은 교회가 영적도약과 부흥 성장하는 핵심가치를 가져 성도 모두가 헌신하여 민족의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임원 및 13개 분과위원회를 소개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지도목사, 실행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실행위원은 전문위원과 안수집사 등 청년 젊은이까지 전 교회적 조직으로 참여하게 된다. (상



세 내용은 6월호에 게재) 참석자는 각 분과의 주어진 사역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바라는 합심기도를 드렸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갈보리찬양대, 부활절음악회 개최

- 세계 초연 <요한 수난곡>



지난 17일 부활주일을 맞아 베다니홀에서는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부활절음악회가 개최됐다.

갈보리찬양대(대장 이창선 장로)에 의해 세계 초연된 <요한 수난곡>은 지난해 98세로 소천한 박재훈 목사님(1922~2021)의 가장 마지막 완성작이다.

원래 지난해 부활절 연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된 후 8월 결국 박 목사님께서 연주를 미처 보지 못하고 소천하신 후 영락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연주됐다.

약 65분간 전곡으로 연주된 요한 수난곡은 요한복음 18, 19장의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중심으로 수난곡의 특징인 코랄과 함께 회중의 합창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를 회중 합창으로 끝을 맺는다.

이번 연주를 위해 지휘를 맡은 박신화 장로는 캐나다에서

후두암을 앓고 있던 박 목사님과 생전에 여러 차례 통화와 함께 설명이 어렵게 되자 직접 써 보내온 박 목사님의 편지를 참고하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의 미있는 연주를 갈보리 대원들과 함께 준비해 왔다.

이날 세계 초연된 요한 수난곡은 오케스트라 편곡(조성원), 복음사가(조성환), 예수(안대현), 빌라도(허용석), 소프라

노(한나형, 남현주), 테너(박승희) 그리고 갈보리찬양대가 합창과 함께 오르간(박소인), 피아노(김은진) 그리고 알테 무지크 서울(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시대의 옛 음악을 사랑하는 연주자들 모임)의 협연으로 이루어졌다.

요한 수난곡은 세계적으로 마태 수난곡과 더불어 바흐의 곡이 가장 유명하다.

취재 인미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고 박재훈 목사(영락교회 시온찬양대 역대 지휘자,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 주요작품: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서 돌아오오, 주여 어린 사슴이, 어머님의 은혜, (동요) 산골짝의 다람쥐, 송이송이 눈꽃송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 운동

공교육현장에 왜곡된 인권교육을 확산시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합니다.

- 1) 기간 및 장소 : 4월 10일(주일)~5월 15일(주일)까지, 매주일 오전 8시~오후 1시, 베다니광장 부스
- 2) 대상 : 서울에 거주(거소) 중인 성도

선교부, 해군·해병대 복음화를 위한 손원일선교센터 건축 후원금 전달식 가져

선교부(부장 심재수 장로)에서 손원일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후원금 2억원을 지난 4월 5일(화) 위임목사실에서 선교센터 이사장, 부이사장, 총회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했다.

손원일 제독의 이름을 붙여 건축될 선교센터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소재로 520평 대지에 연건평 846평 규모로 해군 및 해병대 복음화를 위한 소그룹리더 양성과 영적 리더십 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손원일 제독은 해군 창설과 6.25때 바로 침투한 인민군을 막아내 후방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군선교에 헌신하신 군선교 정신을 이어가며 해군 및 해병대 선교를 위해 선교센터 건



립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선교센타에서 건축 후원에 감사 인사로 보내온 잠수함 모형은 국내 기술로 조건된 <도산 안창호>함으로 선교부 교역자실에 비치된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선교부

제1남선교회, 부활절 맞아 달걀 군부대에 전달

지난 4월 13일 (수) 제1남선교회 (부장 안태운 장로)가 주관하고 남녀선교회, 암수집사회, 북한선교부과 회원이 협력하여 경기도 파주소재의 1사단 육탄교회를 찾아 계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부대 장병들을 위문하며 계란 2만5천개를 전달하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에 특별히 북한선교부에서 초코파이 10박스,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서울캠프에서 군인용 성경 500부와 함께 전



달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자료제공 박진배 암수집사(제1남선교회총무)

이미숙 권사, 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 43대 회장 취임

지난 3월 24일(목)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서울노회여전도회연합회 제98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연합회 직전회장 현정임 장로(제42대 회장)의 사회로 열린 총회에서 연합회 수석부회장이었던 이미숙 권사(중구·용산교구)가 제4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신임 회장 이미숙 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까지 이끌어온 믿음의 선배들이 쌓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이어가며 주어진 선교 사역을 위해 모두 연합하여 이 시대에 합당한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 많이 부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지청 장로, 이승만 대통령기념사업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홍보출판부장 양지청 장로가 이승만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The Memorial Association For Founding President Syngman Rhee)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다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기념사업회 신임 회장으로 부임하며 재임명 받았다.

양 장로는 우남 이승만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으로서 “우남의 업적을 기리며 또한 기독교인으로 기독교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도록 큰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재갑 은퇴장로 별세

차재갑 은퇴장로가 지난 3월 23일(수) 향년 95세로 별세했다. 1928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출생한 고인은 월남하여 주님을 영접한 이후, 부산 영도의 피난시절 그리스도 구원선을 운영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셨다. 1954년부터 영락교회에서 수년간 구역장 등을 맡으시며 1974년 집사 안수 후, 음악부 서기를 거쳐 1980년 12월 제15기 시무장로로 장립됐다. 1994년 12월까지 당회원으로 섬기시며 시온찬양대 30년 봉사상 수여, 갈릴리 찬양대 대장, 베다니찬양대 대장, 영락기도원 원장, 영락동산 관리소장, 교육부 초등부장을 역임했다. 장례예식은 3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지인 영락공원 묘원에서 김운성 목사 집례로 김형찬 목사(용인·화성교구) 인도, 양인성 장로 기도, 김운성 목사 말씀 후, 김순미 장로 인사말,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유가족 및 내외빈이 현화하며 하관예식을 마쳤다. 유족으로 부인 현덕신 은퇴권사와 3남(광호, 광철, 광선)의 자녀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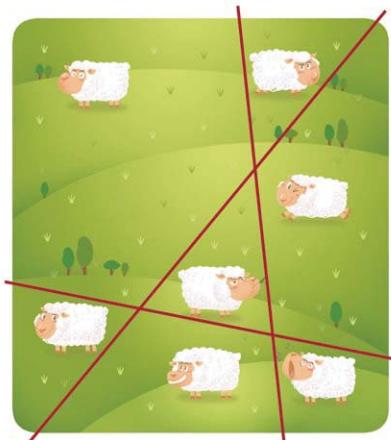
5월 목회력

1일(주일)	어린이주일, 찬양예배 성찬, 유아세례식, 원포인트교육주간
6일(금)	연합권찰공부
7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8일(주일)	어버이주일, 가족주일 특별예배, 제직회, 원포인트 교육주간
15일(주일)	교육주일, 원포인트 교육주간
16일(월)~18일(수)	포이메네스 사모영성수련
20일(금)	심방준비회
20일(금)~22일(주일)	청년선교비전
21일(토)	남선교회 연합체육대회
22일(주일)	사회봉사주일, 다음세대기도회, 원포인트 교육주간

※ 5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성경 속 야곱의 양떼



2022년 5월호 통권 579호

발 행 2022. 5.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효진
나광호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교 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www.youngnakmn.net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같은 공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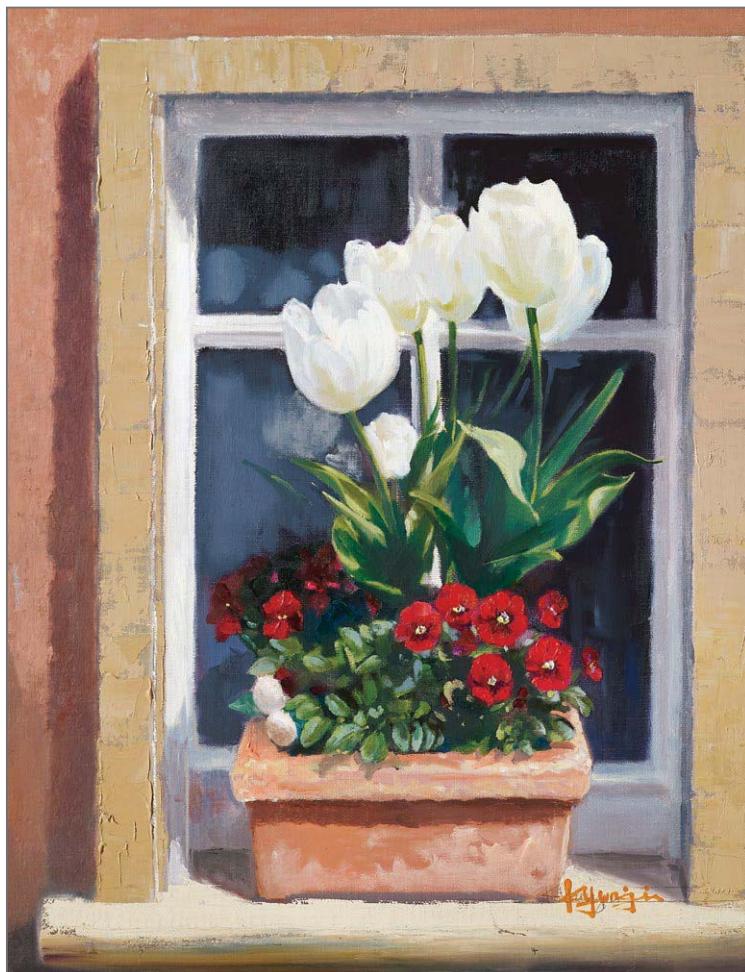


여러분 울고 있는
쌍둥이들에게 줄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의 공을
아래 공들 중에서
찾아보세요.



영락화랑

빛과의 대화



김경인, Oil on canvas, 50×40.5cm, 2019년

끌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8)